

스피노사 哲學의 特徵

李鍾雨

不遇孤獨에 處하여 온갖 迫害을 받으면서도 內心の 平靜을 잃지 안코 悠々超然하게 自由思索에 沒頭한 偉大한 人格 스피노자는 氏의 思想의 中心 概念「實體」 特히 그 二屬性인「延長」과 思惟와의 關係에 對한 見解에 의 하여 必야흐로 現下思想界의 한 關心問題에 對하여 重大한 暗示를 준 思想家의 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承認치 안을 수 없다. 「야코비」(F.H.jacobi)는 「스피노자의 哲學에는 不明한 點을 품은 部分은 一行도 없다. 따라서 氏의 哲學에서 未知難解한 點을 發見하는 사람은 哲學者의 資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록크」(Pollock)는 이에 對하여 다만 反對할 뿐아니라 輕蔑의 눈초리까지를 던졌다. 그리 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야코비는 實上은 스피노사를 理解치 못했다. 그의 氏에 對한 見解는 「피테」(Goethe)나 「홀덜린」(Holderlin)의 스피노사에 對한 그것보다도 더 淺薄하다. 事實은 스피노사 設은 十人이 읽으면 千가지 見解가 생기리 만치 多岐難解한 것이다.」 우리는 눈을 돌려 歷史를 瞥見하자. 스피노사의 在世時로 붙어 死後約一世紀에 이르기까지 超越神과 精神의 創造를 承認하는 基督教의 思想은 勿論이어니와 一般으로 客觀에 對하여 主觀의 優位를 高調하는 主觀主義는 氏의 思想을 自然論 따라서 無神論이란 이름아래서 苛酷한 處置를 加하기에 躊躇치안었다. 따라서 스피노사主義란 말은 異端의 異名으로 쓰여 지기까지 했다. 이 哲學이 이런 苛酷한 取扱을 받은 理由는 (一) 그것이 汎神論的인것 (二)個體의 不死를 否定한 點 (三) 感情論倫理論及政治論 等に 自然主義的 契機를 包含한 點等이다. 그러나 눈물 없는 運命의 神도 氏의 全人格과 全思想에 比하여 그가 받은 對偶가 너무나 不當한 것을 憐愍이였든 氏의 死後 約 一世紀 에 氏의 哲學은 國境을 넘어 獨逸의 詩人間에 新住의 地를 發見했다. 그 後漸々 이 나라의 哲學者間에 그 勢力이 波及되야 드

되어 浪漫哲學의 重要契機를 形成하는데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더구나 一種 主觀主義인 浪漫哲學과 結合한 氏의 說은 칸트哲學으로붙어 發展된 唯心論과 迎合하여 「實體」는 精神으로 解釋되었다. 여기서 注意할바는 氏의 學說은 氏의 敵이 본바와 같이 單純한 客觀主義가 아니라 主觀論과 結合할만한 半面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헤겔」은 氏를 觀念論자로 보았을 뿐 아니라 氏의 方法이 抽象的 形式論理的인 點에 莫大한 不滿을 가짐에도 不拘하고 그 思想內容에 意氣相通하는 바가 있어서 氏에게 많은 同情을 쏟은 事實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그러나 또 다시 눈을 現代에 돌리면 여기서는 現代的 唯物論者들이 氏를 唯物論者로 指目하며 그가 일즉이 唯物論에 기우러 젓젓든 事實에 依하여 自說에 힘을 주려고 한다. 以上과 같이 氏의 哲學이 取扱되어온 오랜 歷史的 過程을 살펴 본다면 氏의 學說을 直接心讀하지안은 사람이라도 「야코비」에 反對한 「폴록크」의 主張에 귀를 기우리기에 躊躇치 아니할 것이다. 事實 氏의 實體 特히 그 二屬性인 延長과 思惟와의 關係는 氏의 哲學에 있어서 多岐難解한 것이며 그만큼 深遼한 眞理를 包含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對하여 滿足한 論述을 試하려면 細部에까지 論及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思想에 對한 筆者의 理解가 淺薄한 것은 勿論이어나와 拙稿를 綴할 時日이 甚히 短促하며 紙面이 極히 制限되어잇으므로 到底히 滿足을 期할 수 없다. 따라서 論述에 많은 粗漏가 잇을 것을 豫期하면서 骨子만을 추려 우리의 題한 問題에 簡單한 說明을 試하려한다.

ㄱ, 氏는 規定이 否定을 伴하는 것을 理由로 神의 定義로 붙어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絶對로 無限한 存在며 各々永遠하고 無限한 本質을 表現하는 無限數의 屬性으로 成立된 神(倫理學第一部定義六對照)은 絶對로 否定을 包含치 안으니까 神에게 規定을 줄 수는 업다. 따라서 人格과 智力을 줄 수도 업다. 故로 氏는 神의 有目的 活動을 拒否했다. 그러나 「데카르트」와 같이 神의 活動은 神의 恣意(Divine Caprice)에 依한다고도 생각지 안코 幾何學의 圖形에서 그 性質이 必然的으로 生함과 같이 神의 行動은 神의 本質에 依하여 必然的으로 決定된다고 생각 했다. ㄴ, 倫理學 第二部定理七에 「觀念의 順序와 結合은 物의 順序와 結合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延長의 樣態와 思惟의 樣態와는 連綿하여 間隔업는 二條의 因果連鎖를 이루며 또한 思惟樣態의 因은 반듯이 思惟樣態 延長樣態의 因은 반듯이 延長樣態여서 一方의 樣態가 他方에 侵入하여 그 進行을 左右하는 일은 업다고 생각 했다. 上述한 바를 綜合하여 본다면 互相侵入함이 없는 延長과 思惟와의 二條의 因果連鎖가 卽 世界(心界와 物界)며 同時에 唯一神의 두 가지 存在方式이다. 이 二條의 連鎖가 嚴密하게 因果律에 支配되며 各々의 樣態는 必然的임으로 世

界에는 自由따라서 目的과 理想을 容納시킬 餘地가 없다. ㄷ, 倫理學第一部 定義三에 曰「實體는 自身內에 存在하며 自身에 依하여 理解되는 것 卽 그 概念은 他物의 概念을 要하지 안코 形成되는 것이다」. 이 實體의 定義로 붙어 實體는 絶對獨立 卽 自己因이며 따라서 그것은 無限(有限하면 他에 依하여 限定되어잇스니까 絶對獨立이 못되니까)한 故로 實體는 唯一(實體가二個 以上이라면 一은 他에 依하여 互相制限되니까)이란 것이 認知된다. 그런데 倫理學 第一部 第六定義에 나타나는 神의 定義에 빛이어 본다면 참의 實體는 神이다. 그리고 實體는 唯一이니까 世界는 實體卽神을 떠나서는 없다. 따라서 神卽自然이다.(氏는 無神論의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부루노」의 用語를 襲用하여 神은 能産的 自然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能産自然이 所産自然의 背後에 숨어 잇는 自由創造의 힘이 아니라 自然속에 全部나타나잇는것으로 생각 했다. 따라서 그것은 諸關係諸性質을 必然的으로 包含한 幾何學的 圖形과 같은 것이다. ㄹ, 倫理學 第二部 定義二에 曰 延長은 神의 屬性이다. 換言하면 神은 延長잇는 것(Ausgedehntes Ding)이다. 上述한 ㄱ과 ㄴ으로 붙어 스피노자設의 決定論的 側面이 ㄷ과 ㄹ로 붙어 汎神論自然論的 側面이 나타나며 ㄹ과 上述한바 倫理學第二部 定理七로 붙어 氏의 實在論的 따라서 唯物論的 色彩가 濃厚하게 보임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氏의 思想의 根本 動機와 志向를 본다면 內的 目的을 承認함으로써 氏가 처음에 보여준 實在論的 傾向을 破壞해버렸다. 氏의 哲學의 根本動機는 解脫을 얻는데 잇섯다. 다만 解脫을 求하는 方法잇섯서 氏의 志向한바가 「스토아」처럼 理性의 힘으로 受動的 情念을 抑制함으로써 法悅을 얻으려함도 아니요. 유도괴아처럼 通路(Zunang)과 地盤없는 架空의 理想을 꿈꾸어 처음 붙어 現實을 無視하는 消極的 方法도 아니라 氏의 解脫論은 認識論과 密接하게 結合해 있다. 그는 처음에는 現實或은 客觀에 重點을 두었다.(여기서 氏의 實在主義的 客觀主義의 一面이 引出되였다) 그 까닭은 氏는 心情의 滿足뿐만아니라 知識의 滿足도 求했슴이며 따라서 普遍者或은 絶對者를 空相或은 信仰하지안코 特殊者間의 諸關係또는 特殊者와 普遍者間의 關係를 明瞭하게 洞察할 必要가 잇슴이였다. 그리 하여 理性으로 처음붙어 感情을 抑制하지안코 도리어 感情의 起源과 性質을 氏所謂第一種知를 떠나 第二第三種知로 洞察하여 萬有를 所謂 「永遠의 相」에 잇서서 靜觀함으로써 생기는 마음에 넘치는 法悅에 依하여 第一種知의 段階에서 生하는 依憑치 못할 有限者에 對한 嫌惡愛慾의 情念이 自然히 最小限에까지 低下한다는 것이 氏의 解脫論의 概要며 同時에 氏의 解脫論의 特異點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解脫이 承認된다면 氏의 世界에는 因果律만이 아니라 內的目的이 承認되지안으면 안되겠다. 처음에는 因果

連鎖를 따라 認識을 進行시켜가면 乃終에는 物心相應한 二條의 因果連鎖밖에 서서 萬有를 永遠의 相에서 靜觀할 수 있는 自由의 立場이 承認될 것이다. 詳言하면 心的으로 보아 思惟의 한 樣態 物的(肉體)으로보아 延長의 한 樣態에 不過하는 人間이 解脫의 境地에서는 因果律에 支配되는 思惟延長의 한 樣態 卽全延長思惟의 한 部分인 一個고리(環)의 意味를 脫却하여 全體에 合致한(或은 全體를 包含한)個體가 된다. 그런데 全體가 部分에 包含되며 表現됨으로 個體는 全體에 對하여 有機關係를 가지게 된다. 이는 世界의 進行에 目的을 承認함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上述한바를 綜合하여 본다면 氏의 哲學이 特異性은 깊은 宗教的 體驗을 背景으로한 深遠한 神秘主義와 幾何學的 思惟를 模範한 峻嚴한 倫理論과의 二 傾向이 結合되어 여러 가지 不調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氏의 哲學이 이 點에 잇서서 重大한 矛盾을 暴露한 것은 氏의 宗教的 體驗 卽直接으로 把握한것을 充分히 概念化할만한 論理를 가지지 못한 까닭이다. 氏도 第二種知(유클리드 幾何學的 綜合論理結局型式 論理에 不過함)만으로는 解脫에 到達치 못할 것을 意識하고 第三種知를 세웠으나 이는 結局非論理的 直觀知이다. 氏에게는 辨證法의 論理가 없다. 다음에 氏의 思想에서 눈뜨이는 것은 所謂並行論(氏가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다)이다. 이 見解를 氏는 認識論과 精神物理的 問題(心身論)와의 二方面에 適用했다 認識의 並行論的 解釋을 誘引하는 氏의 提제는 「觀念의 順序와 結合은 物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 (氏는 같다고 말한 것이요 並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故로 現代的 並行論과 區別하기 爲하여 並行(Paralle)에 代하여 同一(Idensisch)이란 字로 氏의 見解의 特徵을 表하는 이도 있는 貌樣이다). 그런데 氏는 觀念의 定義에 曰「觀念이란 것은 精神이 思惟하는 것 (Denkendes Ding)이니까 精神이 形成하는 精神의 概念이다」(倫理學第二部 定義三) 그리고 이 定義說明에 「나는 知覺이라고 하지 안코 차라리 概念이라고 한다. 그 까닭은 知覺이란 말은 精神이 客觀의作用을 받는다는 것을 指示하는 것같고 概念은 精神의 活動을 表現하는 것 같으니까」라는 말이있다. 우리는 氏의 이 說明을 通하여 概念은 精神이 自發적으로 構成하는 것이란 것은 認知할 수 있다. 따라서 氏의 觀念은 所謂志向作用으로 붙어 抽象된 內在的 對象이 아니라 志向作用을 包含한 것이다. 그런 故로 觀念의 順序와 結合이 物의 그것과 같다고 해도(그리고 延長과 思惟는 唯一의 實體의 二屬性이니까)外界의 認識을 說明하는데는 別矛盾이 없다고 하겠지만 自覺의 事實을 說明할 수는 없다. 氏는 觀念의 觀念(自覺)은 物의 觀念에 붙어 있다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觀念의 觀念의 存在의 說明은 되지 안는다. 따라서 認識의 並行論的 解釋에는 難點이 많다. 다음에 精神物理的 問題의 並行論的 解

釋은 如何. (許諾된 紙面이 盡했으니 結論을 재촉하면) 이 方面에 잇서서도 並行或은 同一이란 概念에는 不滿이 많다. 그러나 엇갯든 스피노사는 이 方面에 잇서서 큰 功績을 남기지나 안엇을까 精神物理問題에 並行論을 誘引하는 命題는 「人間의 精神을 形成하는 觀念의 對象은 身體卽現實에 存在하는 延長의 어떤 樣態以外的 것은 아니다」라는 倫理學第二部定理十三이다. 우리 肉體가 精神生活을 妨害하며 精神을 壓迫하는 일이 흔히 잇는 事實로 불어 肉體는 精神의 牢獄이며 墓라고